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아이드 플케지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66호

Tuesday, January 13 2026 A



“이란 해법, 외교가 첫번째지만 군사옵션도 주저안해”

백악관은 12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군사행동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럴айн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이란 상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이며,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인터넷 사



워싱턴DC로 이동하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용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 망 스타 링크를 운영하는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

프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꽤 다르다’고 어젯밤 여러분(취재진)에게 말했다”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를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위한 접촉을 이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하는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

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듯이 대통령에게도 있다. 대통령은 파월이 자기 일을 못 한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그가 범죄자인지는 법무부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텐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것에 “데드라인(시한)”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연설하고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밝혔다.

미국소집 ‘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도 참석

중국 희토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가국 중 호주는 희토류·안티몬·갈륨을 중심으로 12억 호주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의 참가국의 공통점은 핵심 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를 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

요의 60%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긴급성이 이날의 주제”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낀 이들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이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참가국은 성명

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나 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처럼 핵심광물을 시급한 안건으로 꺼내 들고 앞장서서 회의를 주도한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한 강한 경계가 자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 광물들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과 핵심 광물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꾸준히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호주와의 협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되고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센트 “매년 연방 예산 10% 도난당해”

스콧 베센트(사진) 연방 재무장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11일 공개된 한 주류사회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은 연방 정부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이 연간 3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치가 정부회계감사원(GAO)의 추산에 근거한 것으로,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연방 예산의 약 10%,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그 숫자를 줄이면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간의 부담 끝에 대대적인 군사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었다. 그가 언급한 GAO의 추산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 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방 정부는 사기로 인해 매년 2330억 달러에서 5210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별도로, GAO는 오류 및 과다 지급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범주인 “부적절한 지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밴스의 발표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조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진보 성향 주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에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총회

워싱턴 한미 미술가 협회는 2025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성원으로

뜻깊은 여러 전시를 선보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총회를 위해서 김 수미타 교수의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사
수미타 김 (Sumita Kim)
- 화가
- 몽고메리 칼리지 교수
(Montgomery College)
- 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

일시 2026년 1월 17일 (토) 오후 4시 ~ 6시 30분

장소 설악가든 4308 Backlick Rd. Annandale, VA 22003 / (703) 916-7600

RSVP hmaagw@gmail.com * e-mail로 참석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가 협회 회원들만 참석 가능.

문의: 회장 김홍자 240-506-9874 / 부회장 김진철 410-713-0924

총무 김태동 703-953-6585 / 총무 김현정 201-638-6800

특강 “천경자 화백 / 한국화단의 이단아”

강사: 천경자 재단 대표 수미타 김 (Sumita Kim)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회장 김홍자

비닐봉지 금지된 마켓, 소비자들 당혹

올초부터 플라스틱 퇴출 시행
마켓 등 곳곳에 공지문 나붙어
유료 종이 봉지 찢어질까 우려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나면서 마켓 계산대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진 데 대한 한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SB 1053)이 시행됨에 따라 마켓 등 한인 업소들은 속속 종이 봉지 유료 판매와 에코백 사용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7일 LA 한인타운 일대 한인 마켓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계산대에는 갈색 종이 봉지지만 비치돼 있었다. 물품을 담기 위해서는 종이 봉지를 개당 10센트에 구매해야 했다. 다만 EBT·WIC 등 정부 지원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종이 봉지 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장 입구와 계산대 주변 곳곳에는 관련 안내문도 부착돼 있다. LA 지역 한남체인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이 전



■ 지난 7일 LA 한남체인 계산대에서 고객이 계산을 마친 뒤 종이봉지에 물품을 담고 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종이봉지로 대체된다는 안내문.

강한길 기자

면 금지되고 종이 봉지로 대체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돼 있었다. 종이 봉지의 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바닥을 받쳐 들라는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돼 있었다.

이 같은 변화에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미리챙겨오는 한인들도 눈에 띠었다. 이윤옥(62)씨는 "종이 봉지는 비에 젖거나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쉽게 찢어질 것 같아 에코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종이 봉지를 조심스럽

게 다루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장을 본 뒤 이동할 때 찢어질 것을 우려해 바닥을 받쳐 드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장을 보고 택시를 기다리던 김화자(81)씨는 "평소에는 버스를 타는데, 종이 봉지로 바뀐 뒤에는 식료품이든 봉지가 찢어질까 봐 택시를 불렀다"고 말했다.

업소들 역시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상렬 한남체인 매니저는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며 "계산대에서 받아 간 비닐봉지를 집에서 소량 쓰레기 봉지로 활용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인 약국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정은 식료품점뿐 아니라 약국이 입점한 대형 소매점과 편의점, 푸드 마트, 주류 판매점에도 적용된다.

고려약국의 앤젤라 케이 사장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부피가 크고, 일부 의료기구는 무게가 있어 종이 봉지에

담으면 찢어질 위험이 있다"며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이동 중 봉지가 찢어지면 약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백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규 방주교회 담임목사는 "매달 시니어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에코백을 제공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계산대 봉지(plastic carryout bag)만 금지됐을 뿐, 과일·채소 코너에서 쓰는 얇은 비닐봉지(produce bag)는 계속 허용된다. 이 봉지는 토양에서 분해되는 토비화 가능 소재로 만들어진다.

SB 1053을 위반한 업소측에는 1차 적발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2000달러,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김중칠 회장은 "당장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결국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ICE, 총격 살해…VA 비엔나서 항의 시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 37)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7일 밤 시작된 항의 시위가 미주 전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비엔나에서는 11일 이에 항의하는 반 ICE 시위대가 메이플 애비뉴 중심 거리를 행진했다.

주말 동안 비엔나뿐 만이 아니라 워싱턴DC, 알링턴, 몽고메리 카운티 등지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비엔나의 시위 집회는 굿의 사망 이후 전국에서 열린 수백 건의 집



버지니아 비엔나서 일부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 중 하나로, "희생된 생명을 기리고, 책임을 묰으며, ICE의 행위로 인한 인적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인 '인디비저블(Indivisible)'은 밝혔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서 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굿에게 연대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비엔나에 이어 애나డ일 한인타운 인근 순환도로 위의 보행자 다리에 주민들이 모여 '르네 굿'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성한 기자

VA 홍역 비상…올들어 벌써 환자 2명

해외여행 다녀온 어린이

버지니아 주에서 올들어 불과 열 하루 만에 2명의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11일 버지니아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포트 벨보어 커뮤니티 병원에서 홍역에 걸린 미취학 아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홍역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환자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4세 미만의 어린이로 알려졌다.

주 보건 당국은 노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포트 벨보어 커뮤니티 병원(알렉산더 T. 오거스타 군의료센터)이 노출 장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포트 벨보어 외에도 인근 여주와 워싱턴DC를 통과한 열차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

버지니아 교통국(VDH)에 따르면, 암트랙 동북부 지역 열차 175호는 1월 7일 오후 9시 필라델피아의 윌리엄 H. 그레이 3세 30가 역에서 출발하여 오후 11시 30분 워싱턴DC 유니온역에 도착했다.

이달 초, 보건 당국은 버지니아 중부 지역에서 4세 미만 아동에게서 2026년 첫 홍역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2025년에 5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다.

보건부는 이번 확진 사례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날 가장 높은 시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홍역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 머물려 자가격리하고, 곧바로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날씨 (°F)



1월 13일(화) 53-42

14일(수) 51-27		17일(토) 45-25	
15일(목) 31-19		18일(금) 32-18	
16일(금) 32-25		19일(화) 32-1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박&우 합동법률사무소 Park & Woo, P.C.

WWW.PARKWOOLAW.COM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비자(F, H, E, L, R), 이민 신청, NIW, 시민권, 추방 재판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워싱턴평통 신년하례식 및 통일강연회 성료

‘한반도 평화의 길’ 모색
2026년 사업계획 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박준형)는 11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식 및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평통위원과 한인사회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김지은 위원 사회로 진행된 신년 하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박준형 회장의 신년사, 이재수 미주부의장과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2026년 활동 및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식순에 이어 백대현 주미대사관 통일관의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테마로 강의가 있었는데, 요즘 세계적 분위기에 맞는 팩트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통일에 관한 재외국민들이 갖어야 할 사고와 인식을 폭넓게 전했다. 박준형 회장은 신년하례식과 통일강연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한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강연 직후에는 문화공연과 만찬이 제공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바탕에 동포사회의 평화와 통일공감대 구축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평통 신년하례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상반기 최대 할인행사 ‘프로미스’ 시작

한국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프로모션인 ‘프로미스’ 상반기 행사를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에어프레미아가 고객에게 약속해온 합리적인 운임과 가치 있는 서비스를 담은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으로, 미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가 항공권 판매는 1월 14일 오후 5시(미 서부 PST 기준)부터 시작되며, 대상 노선은 워싱턴DC(딜레스공항)을 비롯해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5개 노선이다.

탑승 기간은 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4월 24일 첫 운항을 시작하는 워싱턴DC 노선은 취항일로부터 적용된다. 성수기 구분 없이 전 기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운임, 즉 할인된 항공권 가격은 최대 94%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며, 할인코드 ‘PRMS10’을 입력하면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운임을 10%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은 이코노미 클래스 예약 시 할인코드 ‘WELCOME’를 통해 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단, 할인코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예약 시 하나의 코드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프레미아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한국로밍 eSIM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초특가 항공권 예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회원가입이 유

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가입 시 탑승자 정보가 자동 입력돼 예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보다 빠르게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여행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는 운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홍알벗 기자

2026년 봄학기 준비 ‘사전 회의’

맥클린 한국학교

버지니아 맥클린 한국학교(교장 이은애)가 10일 애난데일 소재 장원반점에서 2026년 봄학기 준비를 위한 교사 사전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정, 삼일절, 부활절, 지구의 날, 가정의 달 등 주요 행사

기로 뜻을 모았다.

이은애 교장은 “한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년 봄학기는 오는 31일 개강하며 현재 등록을 받고 있다. 교육 장소는 7144 Old Dominion Dr, McLean, VA이며, 문의는 전화 571-235-8997 또는 이메일 autum379@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봄학기 준비 회의를 하고 있는 맥클린 한국학교 관계자들.



2026 丙午年

謹賀新年

지난 한 해 저희 워싱턴수도권한인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워싱턴 동포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수도권한인회 회장 오마리, 이사장 강수지 외 회원 일동

한인 이민 123년...전국에서 기념

13일 미주한인의날 앞두고
LA 등 전국 도시서 행사 열려
정치권도 일제히 결의안 발의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첫 공식 이주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초기 이민자들의 헌신과 공헌을 되새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방 의회는 2005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했으며, 이후 매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와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LA에서는 12일(오늘) 한인타

운 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제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병만 미주한인 재단 LA 회장은 “LA에서는 연방 의회보다 앞선 2003년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이 가장 먼저 통과된 곳”이라며 “그 만큼 이날이 특별히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존 이(12지구) LA시의원이 다음 날인 13일 LA시의회에 상정될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낭독할 예정이다.

미주 한인의 날 당일인 13일에는 LA 한인회가 한인회관에서 123주년 기념 국기 게양식을 개최한다. LA한인회는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과 광복회 서남부지회 등 애국단체들과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헤더 허트(10지구) LA시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동부 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는 13일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의회와 함께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과 국기 게양식을 진행한다.

장영란 협회장은 “국기 게양식은 올해로 4회째로, 지난해에는 태극기가 일주일간 하워드 카운티 청사에 게양됐다”며 “지역 한인 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워싱턴DC 연방의회 건물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연방의회 내 한인 의원 4인방인 앤디 김 상원 의원과 영 김·메릴린 스트리랜드·데이브 민 하원의원, 그리고 지한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영 김 하원의원은 13일

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할 예정이다.

고메즈 의원은 올해로 8년 연속 해당 결의안을 발의하며 한인 사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고메즈 의원은 이날 연방의회 한인보좌진협회(CKASA)와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한인 보좌관들과 리더십, 진로, 한인 정치력 신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 의원은 “한인 이민사와 이민 선조들의 공헌을 기리고, 가주에서 한인 사회가 이룬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라며 “가주 차원에서 한인 사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가주 가뭄, 완전 해소

‘건조 지역’ 25년 만에 사라져

연방가뭄모니터(USDM)는 지난 9일 가주 지도상에 ‘비정상적 건조(abnormally dry)’ 지역이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폭우가 결정적이었다. 토양 수분이 빠르게 회복됐고, 주요 저수지 17곳 중 14곳이 저수율 70% 이상을 기록했다. 산불 위험도 크게 낮아졌다.

UC 기후과학자 다니엘 스웨인 박사는 “올해는 물 공급 걱정이 거의 없는 해”라면서도 “기후 변화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는 최근 15년간 최악의 가뭄과 대형 산불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가장 최근 가뭄만 해도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00일 넘게 이어졌다.

강한길 기자

100불 위조지폐 주의보

인앤아웃버거 10여곳 피해 소액 결제 뒤 거스름돈 챙겨

20대 여성 2명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체포돼 남가주 지역에 위조지폐 주의보가 내렸다.

LA카운티 검찰은 인앤아웃버거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체포된 타티아나 포스터(26세)와 오리온나 루이스(24세)를 위조지폐 사용 및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글렌데일 지역의 인앤아웃버거 매장을 다니며 감자튀김(2.53달러)이나 ‘플라잉 더치맨’(5.93달러) 등 소액의 음식을 주문한 뒤 위조지폐로 결제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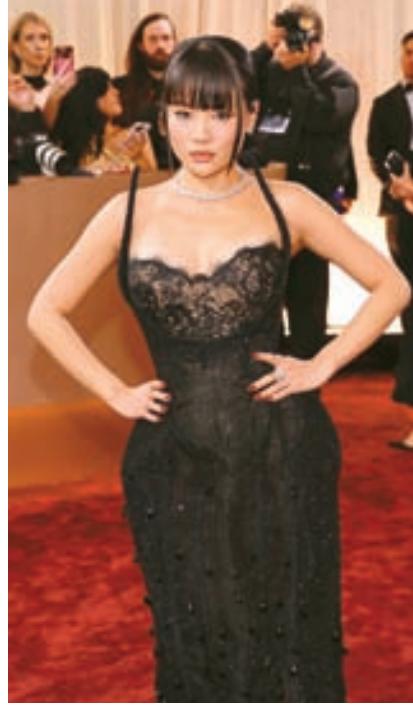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루이스는 지난해 10월 팜데일 지역에서 연방 마샬 테스크포스 팀에 의해 검거됐으며, 포스터는 지난달 체포됐다.

이와 관련 인앤아웃버거 측은 글렌데일 뿐만 아니라 남가주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위조지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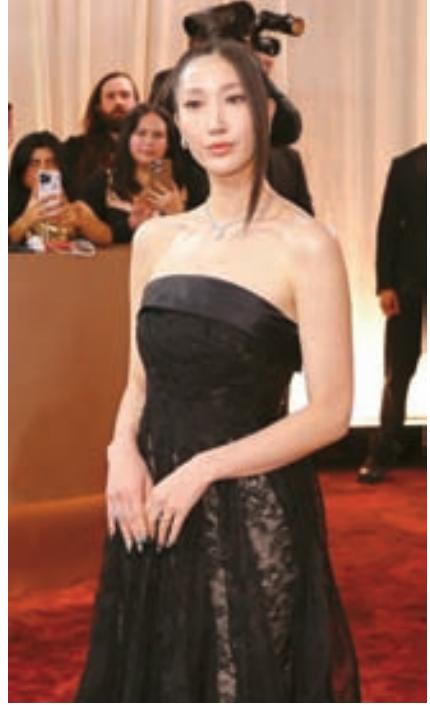
업체 측에 따르면 피해 매장은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10여 곳에 이른다.

글렌데일 경찰국 관계자는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많은 위조지폐와 함께 다양한 기프트카드와 물품 구입 영수증도 발견됐다고 밝혀 피해 업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은영 기자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11일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화제를 모은 ‘K팝 데몬 핸티스(케네스)’의 주인공들도 레드카펫을 밟았다. 사진 왼쪽부터 레이 아미(조이 역), 오드리 누나(미라 역), 이재루미(역). 상보는 [로이터]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美군사개입 없을 것”

카르텔 겨냥 지상공격 위협 배제 작년부터 15번째 ‘전화 외교’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만약 밀매 카르텔 차단을 목표로 한 멕시코 지상 타격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 ‘옵션’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라며, 마야 카르텔 차단을 위한 미국의 멕시코 영토 내 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여려

분이 멕시코에서 우리 군대의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이라는 톤으로 물었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 우리 주권 범위 안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정말로 미국의 군사 행동이 배제된 것인지’ 재확인을 요청하는 현지 취재진에 멕시코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액스(X-엣 트위터)에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주권과도 관련된 안보 사안을 비롯해 마약 밀매 감소와 투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했다”라고 적었다.

후안 라몬 데라 푸에레 외교부 장관,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안보부 장관, 로베르토 벨라스코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이 세인바움 대통령과 동석한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협력과 협조는 항상 성과를 거둔다”라며 미국과의 갈등 조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마약 밀매)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run)하고 있으며, 그 나라(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웠고, 관리하는
는 치료회원 출신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년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간병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9 ~ 2/13 → 전화 예약 필수!
Home Care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히잡 벗고 하메네이 사진 태워 담뱃불…‘이란 저항’ 상징 되다

〈이란 최고지도자〉



الله اسلام سید حسن خمینی، از ملت ایران دعوت کرد با حضور در اجتماعی



1 11일 시위 사망자들의 관이 테헤란에서 운구되는 장면(이란 국영TV). 2 같은날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여성의 그림을 SNS에 공유했다. 3 하메네이가 12일 SNS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무너진 석관으로 묘사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하메네이·JK 롤링 엑스, 로이터=연합뉴스]

‘해리 포터’ 저자도 여성 그림 공유
이란 통신 차단에 학살 은폐 우려
주민들 “빵보다 인터넷이 중요”
트럼프 “이란서 전화, 협상 원했다”
하메네이, 무너진 ‘트럼프 석관’ 올려

이란 시위가 견갑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저격수를 동원하는 등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돼 진압 현장이 제대로 알려지기는 커녕 정확한 사상자 수 파악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그럼에도 히잡을 벗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는 이란 여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뒤흔드는 등 국제사회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다. 이란 시위에 ‘군 개입’을 시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이란으로 향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급감했고, 국제전화와 휴대전화 서비스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현지에서는 ‘빵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내에 수신 기 수 만 대가 설치됐다고 알려진 위성통신 스타팅크 사용이 어렵도록 GPS 신호 교란에도 나섰다고 한다.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아미르 라시디 이사는

CNN에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든 통신 수단이 차단됐다”며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돼 이란 정부가 학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이란 인권활동가 뉴스통신(HRANA)’ 등은 지난 2주간 시위로 최소 544명이 사망, 1만 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2000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이란인터넷내셔널)는 보도가 쏟아진다. 실제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조준 사격”(가디언)하는 등 진압은 더욱 무자비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 정부의 ‘은폐’는 오히려 국내외 반정부 시위를 자극하고 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는 사

진이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유럽 등에서 이란 대사관 인근에 수백,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팔비치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군을 거론하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몇 가지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참모진과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에서부터 군사·민간 시설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하메네이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져 내리는 고대 이집트 석관(돌로 만든 관)으로 묘사한 그림을 올리고 “세상의 폭군과 오만한 이들이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몰락했다는 사

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 또한 몰락할 것”이라고 적었다. 항전 의지를 밝히고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에 전화를 걸어 협상 의사를 전해 왔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란 시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하메네이 사진에 담뱃불을 붙이는 여성의 그림을 올리고 “인권을 옹호한다며 이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본모습”이라며 이란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공유하며 연대를 표했다.

김형구 기자, 한지혜 기자

“삑” 미 이민단속 저항 아이콘 된 호루라기

두번 짧게 불면 “ICE 떴다”는 의미
민간인 사망에 항의 시위 1000여건



9일 미국 미니애파리스의 한 호텔 앞에서 시위대가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난 10~11일 미국 50개 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시위가 열렸다. 뉴욕에선 이민법원과 구금시설이 있는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위대 약 500명이 시청에서 연방 구금시설 까지 행진하며 “ICE는 사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당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은 중요하

다)” 구호를 내걸고 과격 시위가 일어났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현재까지 평화로운 분위기다.

발단은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파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종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굿은 차량 운전석에 탄 채 도로를 막고 있다가 차문을 열라는 ICE 요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하려다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정부는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다. 비판하는 쪽에선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었

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위 현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비폭력 시위대의 저항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호루라기를 짧게 두 번 불면 “ICE 떴다”는 뜻이고, 한 번 길게 불면 “단속을 시작했다”는 경고다. 호루라기를 길게 불면 단속 대상은 피하고, 항의 시위대는 모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한편 시위가 거세지자 미 국토안보부는 11일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환·하수영 기자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Hot Spot Hot Pot

"OG AYCE HOT POT JOINT"

"Original All You Can Eat Hot Pot"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십여 년 전,
가장 먼저 무제한(AYCE) 핫팟을 도입한,
저희 식당에 아직 한 번도 안 와 보셨다구요?
그럼 신년 맞이 \$19.99 무제한 런치 스페셜을
일단 드셔 보세요!



Limited Lunch Special

\$19.99

월 ~ 금요일
11:30am ~ 4:00pm
*Seafood는 제한됩니다.



1. 일반적인 런치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
2. 따로 마련된 소스바에서 자유롭게 본인만의 소스를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3. 육수 종류도 마라육수, 샤브샤브육수, 양육수, 김치육수, 미소육수, 버섯육수, 한방치킨육수 등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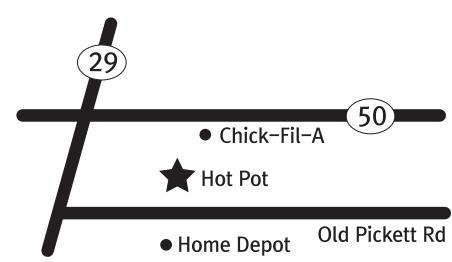
오리지널 무제한 핫팟, Hot Spot Hot Pot으로 오세요!



페어팩스점

3232 Old Pickett Rd., Fairfax, VA 22031
(페어팩스 circle, 흄디팟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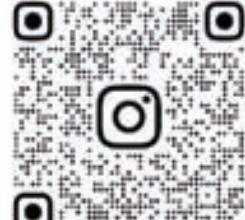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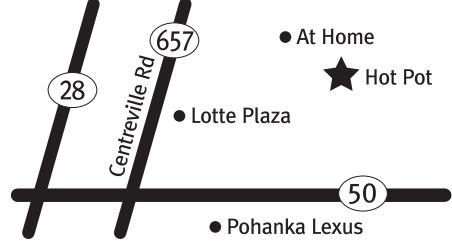
703-537-0325



챈틸리점

13908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챈틸리 롯데 건너편)

571-287-7332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spotva.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30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년데일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사포닌 함유
한방당 18mg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사포닌 함유
한포당 18mg리튠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리튠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니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튠 진한
레드 셀룰라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의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 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하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00 \$250.00

광동 침향환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엿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 엔 매스틱



메디트리 쾌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뉴질랜드 초록임 흉합
하이퍼리프트

당케어골드



징코크린 정

농협 한삼인 홍삼
10% SALE

100% 홍삼즙 60포/30포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3+1
스페셜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감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炎
- 기관지 노폐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술취기 질들다.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영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명인 용융 죽영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홍황씨환
장수 넘버원
홍황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쟁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금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오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글루타치온 클라겐
간 회복과 피부 마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일에 글루타치온
387mg 험량먹는 밸모제 비오텐
고함량 비오텐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뻑뻑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카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불 EX / 흑마늘
제도아리 / 제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클라겐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중수청, 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제2 검찰청’ 논란

〈법조인 출신〉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중수청 9대 범죄 수사, 행안부 소속
변호사 자격·전문성 갖춘 ‘사법관’
비법률가인 ‘수사관’으로 나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정부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구상을 12일 공개했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검찰은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기존 검찰 수사 대상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 조직은 현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제2의 검찰청’ 혹은 ‘또 다른 검찰청’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법·중수청법안을 첫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의 9대 범죄다. 구체적인 죄명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수청은 약 3000명 규모로, 본청 외에서

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권역에 지부를 둘 계획이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수사사법관은 최대 10% 범위에서 변호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한다. 수사사법관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통제한다. 조직 이원화 배경에 대해 추진단은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인력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법률가 영역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사법관이 중수청 내에서 ‘제2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구분, 이전 발생 시 조정 절차 역시 법안에 명확하지 않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하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시 사건을 공소청에 자동 통보하고,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협조해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도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공소청 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인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전면 삭제됐다.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검사는 기소·공판 및 수사 통제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 전담기관이 된다. 조직 체계는 현행과 유사하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청 청사와 관할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 역시 그대로 사용한다.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공소청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검사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중수청 등의 사건을 모두 송치 받을 수 있도록 할지 등 핵심 쟁점을 향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석경민·조수빈 기자

국힘 당명 바꾼다…당내 “체질 안 바꾸면 겉만 포대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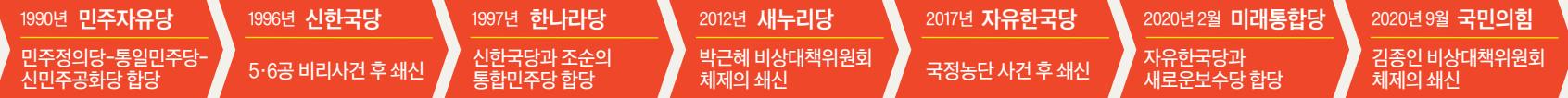
5년 만에 개정, 책임당원 68% 찬성
공모전 거쳐 설날 전까지 마무리
“기존 행태 중 잘못된 것 절연해야”
노선 확장·체질 개선 선행 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현동 기자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 당명 변천사



했다.

장 대표는 새로운 당명에 “보수의 가치를 담겠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안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시대를 바꾸고 주도해 가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는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5개년 계획도 마지막은 복지의 문제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의 색깔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명과 색깔이 조화

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인 서지영의 원 주도로 이번 주말까지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 까지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단순한 당명 교체가 아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강령 전문에 ‘경제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선거 구도가 불리했지만 쇄신 효과로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었다.

주호영(6선)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명을 바꿀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

만 엄청나게 들이면서 ‘내용은 똑같고 걸포대만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는 당명을 바꿔 ‘친윤’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경제민주화 같은 근본적인 노선 확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와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양수민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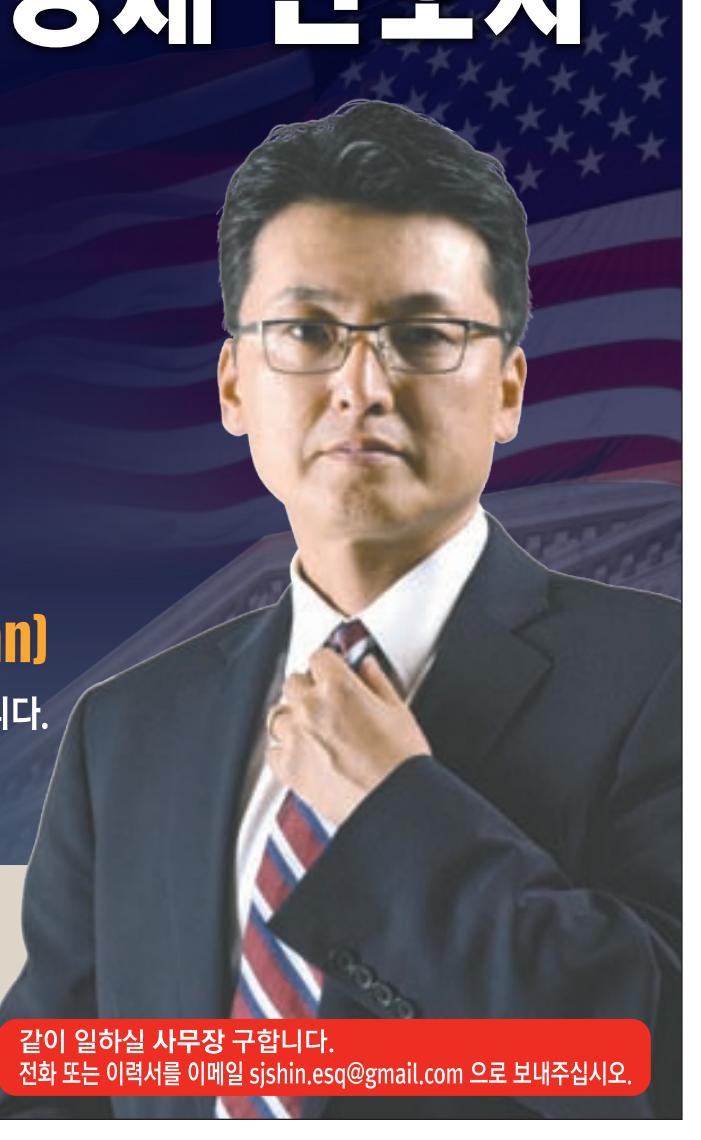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 단체 범위에 대한 조작적·체계적인 행위를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움직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교회의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 대통령, 김정식 한국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 대주교,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총무,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종수 성균관 관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청와대]

체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 업을 하거나, 설

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움직임 없는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

검과 연계해 종교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우리가 깊이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일본총리 고향서 한·일 첫 정상회담 일본서도 “이례적 극진 대접” 평가 대통령 “한·일 협력 분야 위축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2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위축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奈良) 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 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0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일본 NHK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경주를 찾자 이 대통령이 차기 ‘서틀외교’ 장소로 나라현을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으로 조성한 데 대해 ‘이례적 오토모테나시(극진한 대접)’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으로 초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총리 고향에서 양자 회담이 열린 사례가 없다.

일본 언론은 나라현에 한·일 양국의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두 정상

이 14일 방문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 호류지(法隆寺)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은 경주처럼 천년고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법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2년 수몰 사고

가 발생한 해저 캠도인 조세이 탄광에 선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이는) 일본 국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증폭시킨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야 그간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차량 사고, 운동사고
- 차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주택 매매 및 편트

1465 Hampton Hill Ct, McLean, VA	COMING SOON	\$1.25M	호리가 Hamption of McLean 예비 가입 입니다. 거래를 한 예비판매되고 소유의 나서 본인 등도 맡아 맡았고 판매 등. 2,16 마켓팅 판매를 예상합니다.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저택의 최고 1 터로 흥. 경쟁률을 둘고 막혔, Buyer So Happy 12/22 새집온전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생리가 편하고 조건으로 1. 45일 무른 Rent Back로 보너스. 문희는 하는 것도 잘 알, Seller So Happy. 11/24 새집온전 판매
1477 Hampton Hill Ct,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밀집 경쟁에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새집온전 판매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킬 시리아자 주제원 장기 편트 판매 10/21 새집온전 판매
1693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에 있는 잘 생긴 실내공

사업체 매매

밀리실(DO)

\$150K.

DC 내 위치 좋은 청사 잘 되는 굳이나 은회 예정 사업체 양면에서 투자될 때, 두 차례 짐 살피 때 따른 차이판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활용해요.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풀 거울/판금 등에 꾸민 나무 주택원 30여평 멀트. 텐트 놀이 카페 있는 집 주인 활용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원룸
1423 McLean Woods Ct, McLean, VA	NEW	비로 입주 가능
McLean, One Park Crest 편도	NEW	비로 입주 가능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NEW	비로 입주 가능
Centreville, VA	NEW	12/20 입주 가능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NEW	12월 말 입주 예정
7606 Jenkins St, Springfield, VA	NEW	1/15 입주 예정
Vanna 타이슨 및 Amberton으로 투자스 단지 3층	NEW	전세 10만 원, 두동 11만 원 예정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만배 통장엔 7만원뿐…대장동 4800억 계좌 까보니 ‘깡통’

(2700억 가압류 계좌)

성남, 대장동 일당 4명 계좌 확인
가압류 통장엔 4억7000만원만 남아
범죄수익 대부분 이미 빼돌려

경기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의 통장에서 이미 수천억원이 빠져나 가 사실상 ‘깡통 계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 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제공한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 월 1일 법원에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 청을 냈다.

법원이 최근 성남시가 항고한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까지 인용하면서 가압류·가처분 금액은 총 5579억원이다.

그러나 성남시에 따르면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이들의 은

행 계좌에선 이미 수천억원이 빠져나갔다. 회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은행 계좌(청구액 2700억원) 잔액은 7 만원이었고, 천화동인 1호가 명칭을 바꾼 ‘더스프링’ 계좌(청구 금액 1000 억원)는 5만원만 남아 있었다. 남욱 변 호사가 보유한 앤에스제이홀딩스(청 구 금액 300억원) 계좌의 잔액도 4800 만원 정도였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0.1% 수준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시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5 일 작성된 서울중앙지검 형사기록(수 사보고서)은 ‘본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7월 말 기준 이들의 범죄 수의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 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가압류 계좌잔액 현황		
김만배 (회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387억원	1010억원	647억원
4100억원	340억원	300억원
186만원	4억6824만원 (차명 추정 계좌 포함)	확인중

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낸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 4건의 추징보 전 결정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교부 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열람 등 사가 가능하게 사건번호를 알려줬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 라는 14건의 기록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라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 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 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약속에 걸맞은 전향 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검찰, MBK 사기 1164억 특정…“홈플 신용 강등 최소 11일전 알았다”

김병주 회장 등 4명 구속영장에 적시
MBK “전혀 몰랐다, 모든 혐의 부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구

속영장은 청구하면서 사기 규모를 1164 억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발행한 채권부터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K와 홈플러스가 이때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청구한 김

회장과 김광일(MBK 부회장) 홈플러 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 성진 전무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 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

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064억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 채(SB) 100억원이 포함됐다. 홈플러 스는 지난해 2월 17일 증권사를 통해 ABSTB를 244억원 발행한 이후 같 은 달 18일(CP 30억원), 21일(CP 50억 원·SB 20억원), 25일(ABSTB 820억원) 을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투자자들에

게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알리지 않고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건 지난해 2 월 28일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BK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실제 강등이 이뤄지기 최소 11일 전인 2월 17일 이전 엔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고 봤다.

당초 2월 25일 ABSTB 발행(820억 원)을 놓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인 지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 이란 의미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2023년에도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K는 홈플 러스로부터 경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출 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이땐 실 제 기업회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업회생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준비한 만큼 지난해 2월에도 기업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 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답 부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 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며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치킨집 매출 어디가 높을까? 서울 426개 동 경제 데이터 한 눈에

서울에서 치킨집 매출이 가장 높은 구 는 어딜까. 강남구로, 지난해 2분기 기 준으로 접포 117곳의 매출액이 약 113 억원이었다. 월평균 38억원 수준이다. 이어 송파구(2분기·94억원)·서초구(86 억원)·종로구(70억원)·영등포구(68억 원) 순이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구는 강 남구(324만원)·서초구(319만원)·용산 구(260만원)였다.

서울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경제관’이 서울데이 허브 누리집 안에 문을 연다. 서울 시는 서울데이터허브에 흘러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1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관은 경제구조·성장, 경기지수, 산업, 창업·자영업, 고용·소득, 물가, 소비, 가계금융, 부동산 등 총 9개 분야의 주요 경제 지표를 다룬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취

업자수, 창업률 등과 같은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구 단위뿐 아니라 426개 행정동 단위로 세분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원하는 동네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지역 거 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지난 10년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치킨집, 카페 등 100가지 생활 밀접업종의 분포를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업종을 선택하면 서울 전역에서 해당 업종이 어디에 밀집해 있는지, 최근 10여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용산구의 경우 2018년에는 생활서비스 위주의 업종이 많았다면, 2019년 들어 숙박·외식·여가 지역으로 동네 사업체 업종이 바뀐다.

이를 토대로 용산구에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예비창업자라면 경제관

에서 용산구의 카페 매출이 얼마인지 서울데이터허브의 경제관에서 426개 행정동의 주요 경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서울시]

를 나잇대와 성별로도 나눠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사 용액이 얼마인지, 월평균 추정 소득 등 도 파악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서울데이터허브의 경제관에서 426개 행정동의 주요 경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서울시]

를 나잇대와 성별로도 나눠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월평균 추정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 · 상속재산 정리절차 · 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 · 유언 · 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 ·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 · 재판 이혼 · 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 · 자녀 양육권 · 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연,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같이 울고웃던 코스피·원화, 이젠 따로 논다

원화값 장중 1470원 '약세'에도 코스피 4624, 최고점 7일째 경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어서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새해 첫 개장 이후 7거래일째 최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고 있다. 장중 한때 4652.54까지 올라 지난 8일 세운 장중 최고가(4622.32)도 넘어섰다.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훈풍이 온기로 번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은 0.48%, S&P500은 0.65% 상승 마감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파장이 크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판결이 지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다.

반면에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장중 1470선을 터치하며 8영업일 연속 약세(환율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통화 가치 하락과 주가 급등이 함께 나타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 국내 증시가 활황일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화도 강세를 나타낸다. 반대로 원화값이 내려가는(환율은 상승) 상황에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된다. 보유한 원화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디커플링(비동조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국내 증시 활황에도 미국 투자를 이어가는 '서학개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원저(低)는 코스피의 상승세와는 무관하게, 원-달러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12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4624.7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서울 종구 우리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유라는 의미다.

현재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수혜를 보는 대형 수출 기업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을 비롯해 조선·방산업종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로 과거 보다는 환율 변수에 둔감해졌다지만, 원저는 원화로 환산한 영업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준다. 특히 현재의 상승장은 환율 리스크보다 기업의 성장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실적 장세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이 팔아도 국내 기관과 개인이 실적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내며 지수 하단을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증시보다는 한·미 금리 차와

연관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럽·일본 등 예선 자국 통화를 팔고 미국 국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해당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뉴노멀'이 나타나고 있는 것엔 입을 모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관성처럼 작동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기계의 자발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 원화 가치와 주가 간 디커플링이 뚜렷해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증시에선 종목별로는 지정학적 불안과 업종 호재가 더해진 조

선·방산·기계·원전주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했다. 건설(8.5%), 금속(3.4%), 기계·장비(3.3%), 운송·창고(3.1%)가 오름세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원전 기업들과 대규모 발전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현대건설(20.18%), 두산에너빌리티(4.63%) 등 원전 테마주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13만 8800원이었다.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 등 증시 주변 자금도 늘면서 투자 심리는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지난 9일 102조원을 돌파했고, '빚투'가 포함된 신용거래융자 규모(9일 기준 28조3497억원)도 사상 최대 기록을 고쳐쓰고 있다. 증시 주변 자금 증가는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숨가쁜 상승세와 반도체로의 과도한 쏠림을 둘러싼 불안감도 크다. 12일 한 증권사 임원은 연일 고점을 찍는 코스피 불장에 "결과에 이유를 끼워맞추는 기분"이라며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자동차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단기 등락을 거치며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각 기업이 실제 올해 전망을 어떻게 제시할지 어닝 시즌(실적 발표)이 첫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유미 기자

외환 컨트롤타워가 없다

경제수장 중에 외환전문가가 없어 애꿎은 서학개미·수출기업 탓만

원화 가치가 추락해 다시 달러당 1470 원 근처까지 갔다. 지난 연말 정부가 쏟아낸 고강도 개입의 효과도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환율은 정부 조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국내 기업도, 개인도, 해외 투자자도 여전히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서다.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더져나오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 당국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

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내린(환율은 상승)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30일(1429.8원)부터 8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대심리 관리의 실패'다. 앞으로 원화값이 더 내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미국 주식을 포함한 달러 사재 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 개인투자는 미국 주식을 총 19억4200만 달러(약 2조 83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한국예탁결제원). 2011년 이후 최대치다. 현장에선 '기껏 정부가 개입해 원화 가치를 올려놨더니 미국 주식을 더 매수할 기회 만줬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달러당 원화값이 1500~16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투자자도 그렇게 생각 하니 달러를 쥐고 가려는 것 아니냐"며 "이런 기대를 둘러놓는 게 핵심인데 과연 정부가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80원대까지 하락하자 구두개입과 함께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풀며(실 개입) 진화에 나섰다.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카드까지 꺼냈지만 효과는 길지 않았다. 그런데도 외환 당국의 대응은 부실하다. 지난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점

검회의를 열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판에 박힌 언급을 한 게 전부다.

경제 수장 중 외환시장 전문가가 없다 보니 당국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 관리 책임자이자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구 부총리는 주로 예산이나 정책 조정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다. 실무자로 외환시장을 다른 경험 이 거의 없다. 이역원 금융위원장도 주로 경제 정책을 다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역시 금융과 성장 정책이 주 전공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환 컨트롤타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전원이 '원저(低) 비상'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보니 애꿎은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탓만 하며 엊박자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수급 조절도 중요하지만, 원화 약세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강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재정이 추가로 악화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70% 정도로 올라가면 환율은 더 흔들릴 것"이라며 "그나마 반도체 사이클,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벤인세 수입이 괜찮을 앞으로의 1~2년이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버크 타운홈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PENDING
\$200,000
방1 / 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우리말 바루기

'환골탈퇴'를 할 수 없는 이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연초에는 지난해와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 올라온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게을렀던 모습에서 ‘환골탈퇴’해 부지런한 사람 이 돼 보겠다” 등과 같은 글들이 눈에 띈다.

‘회원 가입’과 ‘탈퇴’에 익숙한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일을 일컬어 ‘환골탈퇴’라고 표현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라고 해야 바르다.

‘환골탈태’는 중국 남송의 승려 혜옹(惠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서 나온 말이다. ‘환골’은 도가(道家)에서 인간이 속골(俗骨)을 선골(仙骨)로 바꾸어 몸에 텔이 난다는 뜻으로, 신선이 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탈태’는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 형식을 바꿔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시인의 시상(詩想)이 마치 어머니의 태내에 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시적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환골’과 ‘탈태’ 모두 뼈대를 바꾸고, 태 역시도 바꾼다는 뜻이니 이를 합친 ‘환골탈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한국인에게 사나이의 눈물을 자아내는 신라면이 있다면, 일본인에게는 ‘면’이라는 음식의 깊이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라멘이 있다. 단순한 국수 한 그릇 같지만, 라멘은 일본 음식 문화의 집요함과 장인정신이 농축된 결과물이다.

라멘은 엄밀히 말해 일본 고유의 음식이 아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건너온 밀가루 면과 국물이 요코하마·하카타 같은 항구 도시를 통해 퍼지면서 일본식으로 재해석되었다. 이후 지역별로 육수와 간, 면발을 달리하며 발전했고, 전후 일본의 대중식 문화 속에서 ‘서민의 한끼’이자 ‘장인의 음식’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게 됐다.

대부분의 일본 라멘에는 돼지고기 차슈가 올라간다. 그래서 돼지고기 특유의 향을 이겨내지 못하면 라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 특히 돈코츠 라멘은 돼지뼈를 장시간 고아낸 육수와 해심인데, 이 국물은 일본 열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의 잘 끓인 돼지국밥 육수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문화는 달라도 허가 기억하는 감각은 비슷하다.

라멘은 육수와 간에 따라 성격이 뚜렷하게 칼린다. 진하고 묵직한 돼지 육수의 돈코츠 라멘, 일본 된장을 더해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낸 미소 라멘, 간장 베이스의 닭·해물 육수로 맑고 정갈한 쇼우 라멘, 소금으로 간을 해 담백함을 살린 시오 라멘까지, 한 그릇 안에 지역성과 철학이 담긴다.

LA 한인타운에서 최고의 라멘집을 하나 꼽으



라이언 오
CBC 월서프로파티
대표

라면 웨스틴과 7가 인근의 이키라멘을 빼놓기 어렵다. 유명 일식집 매니저 출신의 인도네시아계 중국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특히 인상적인 메뉴는 간장 베이스의 쇼우 라멘이다. 국물은 깔끔하고, 차슈에서는 돼지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차슈를 꺼리는 일행에게는 매운 비건 미소 라멘을 권할 수 있는데, 고기 대신 두부가 올라가 단백질 식감까지 살렸다. 유자 향이 은은한 시오 라멘도 신선하다. 저녁 시간에는 사케와 곁들일 수 있는 이자카야 메뉴와 오마카세까지 즐길 수 있어, 손님 구성도 백인·히스패닉·아시아계가 자연스럽게 섞인다. LA 본점을 중심으로 웨스트 LA와 할리우드까지 지점을 둔 이유가 분명하다.

8가 옥스포드 센터의 슬러핑 라멘은 한인타운 라멘 지형도를 바꾼 집이다. 한인타운 최초의 본격 돈코츠 라멘 전문점으로, 짙고 진한 국물을 선호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낮은 식탁 대신 높은 공용 테이블과 바 스타일 좌석은 ‘후다닥 먹고 일어나는’ 라멘 문화에 충실하다. 쇼우 라멘

은 따로 없지만, 간장 베이스의 베지 라멘은 채소가 산처럼 올라와 만족도가 높다. 동네 히스패닉 주민들도 부담 없이 드나드는, 말 그대로 ‘동네 편한 맛집’이 됐다.

체프맨 플라자에는 실버레이크에서 시작해 신화를 쓴 실버레이크 라멘의 가맹점이 성업 중이다. 주력은 역시 진한 돈코츠 라멘이다. 파킹 공간도 변변치 않던 예술가 동네 실버레이크에서 출발해, 맛 하나로 줄을 세우더니 지금은 30여 개가 넘는 지점을 둔 브랜드로 성장했다.

웨스턴 6가 마당물 2층의 코판 이자카야는 라멘과 일식 전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을 운영하는 모두 푸드는 코판 라멘, 영동순두부 등을 포함해 40여 개 매장을 보유한 한인 외식 업계의 강자다. 월서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옛 산 누들 자리에 새로 문을 연 아카토라 라멘은 돼지 육수 중심의 흐름에서 한발 비켜 서 있다. 닭과 해물 육수를 사용한 쇼우·시오 라멘, 흥합 라멘이 주력이다. 계란밥, 차슈덮밥, 명란 덮밥 등 곁들임 메뉴도 다양해 다시 찾고 싶게 만든다.

LA 한인타운의 라멘은 문화가 섞이고 변주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풍경이다. 돼지국밥과 닭은 국물에서 공감을 느끼고, 비건 라멘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한국식 라면으로 재해석된 그릇에서 타운의 정체성을 본다. 한 그릇의 라멘은, 오늘도 LA 한인타운이 얼마나 다층적인 공간인지 증명하고 있다.

이야침에

떠나는 것들 속에 사랑을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유년의 기억 속에 대청마루 한가운데 액자가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뭐가 적혀 있는지 읽지 못했다. 우리집 대청마루는 누구나 쉬어갔지만 대부분 액자의 글을 읽지 못했다.

내가 태어난 곳은 현풍읍을 지나 마산과 창영을 연결하는 삼거리 작은 동네다. 낙동강을 구비 돌아 비슬산을 등지고, 면지가 눈 앞을 가리는 도로를 달리면 삼천리 버스는 우리집 앞에 선다.

대구에서 탑승해 목마른 손님들에게 차갑고 신선한 우리집 우물물을 배달하는 건 내 몫이다. 갈증을 푼 손님들은 청문 틈으로 찌개발(?)을 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애호박 바지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고마운 사람에겐 돈을 주는구나 생각했다.

아! 이젠 족보도 연유도 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청마루에 유령처럼 자리 잡고 있던 그 액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한글을 잘못 읽는 데도 어머니는 정성스레 액자의 면지를 닦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액자의 시를 내가 낭송하고

부터 어머니 이마의 굵은 주름살이 펴지고 보름 달은 외양간과 돼지우리, 찔레꽃이 만발한 마당을 훤히 비춰주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슬퍼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옴을 믿으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 순간에 지나가는 것/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는 것을’

알렉산드리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는 청상과부 어머니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푸시킨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문학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단순한 시인을 넘어 러시아 문어

체의 기틀을 세운 작가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나 레프 톨스토이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살아갈수록 푸시킨의 시가 주는 무게가 가슴에 쌓인다. 어릴 적엔 철없어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탐욕과 재물에 도취해 욕망이라는 전차에 매달려 허우적거렸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 남은 시간을 소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소중한 것들이 한 순간, 눈 깜박 할 사이에 사라져도 그리운 것들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고뇌와 아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새벽 별 머리에 이고 아침을 기다린다. 마음은 침묵으로 말한다. 떠들지 않는다. 마음의 창문을 닫지 않으면, 내일은 미래를 머리에 이고, 밝은 걸음으로 창문을 두드린다.

사랑하는 그대여! 마음이 미래에 사는 것처럼, 오늘이 슬퍼도 내일은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 순간에 인생이 빛없이 지나가도, 떠나는 것들에게 가볍게 손 흔들며, 다가오는 날들 위해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간구합니다.

1. 센터빌 빌딩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4, 화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벌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깔끔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치고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트맥 풀/RT95, RT1, RC34, 디씨풀그 펄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터,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니어처, 캐비닛,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Under Contract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빌딩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현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95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January 13, 2026

챕터 3개 읽었는데 재미없으면 책 바꾼다

독서의 효과와 습관 만들기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학교 공부나 대학 입시에 무르지 않고 더 의미 있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왕도다. 공부에 왕도가 어디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왕도가 있다. 특히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최고다.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독서의 구체적인 습관 만들기를 모색해 본다.

책을 읽는 행위, 바로 독서는 단순히 숙제나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효과와 실천 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독서는 어떤 효과

1. 성적 향상: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자녀들은 모든 과목에서 평균 20-30%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영어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 과학 논문, 역사 분석 등 모든 영역에서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두뇌 발달: MRI 연구 결과, 독서는 실제로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언어 처리 영역의 신경 연결이 강해진다. 단어와 문장 등을 해석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두뇌는 이런 발달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3. 어휘력 증가: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생은 약 4만개의 단어를 익히게 된다. 하지만 꾸준히 책 읽는 학생은 6만개 이상의 단어를 알게 된다. 일반적인 책 한 권당 일상 대화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500-1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SAT/ACT 점수, 특히 언어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4. 공감 능력 발달: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독서는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왕도다. 잘 설득하고 이끌어 독서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 인 여고생이 대입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Groksense]

고소득 직업 85%는 뛰어난 독해력 필요

고교생은 독서 노트 시스템 활용해 볼만

, 다양한 소설을 읽는 학생들은 공감 능력이 15-20% 더 높고, 갈등 해결 능력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5. 미래 직업 준비: 연방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직업의 85%가 뛰어난 독해력을 요구한다. 데이터 분석, 계약서 검토, 전문 분야 최신 정보 파악 등 독서 능력은 향후 연봉 등 수입과 직결된다.

▶ 연령별 독서 습관 만들기

1. 초등학생 (K-5학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시기다.

첫째, 하루 20분 독서 습관을 갖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책 읽기를 한다. 자기 전이 가장 효과

적이다. 자녀가 직접 책을 선택하게 한다. 흥미가 습관을 만들게 된다. 부모와 함께 소리 내어 읽기와 혼자 읽기를 번갈아 하게 한다.

둘째, 그림으로 내용을 예측하면 좋다. 초등학생 책은 역시 그림책부터 시작한다. 책을 읽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이끌면 흥미를 유발한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같은 질문을 해준다. 실제 읽다 보면, 예측과 실제 내용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단어 노트를 익히게 한다. 저학년이므로 아는 단어보다는 접하지 못한 단어가 많다. 모르는 단어를 적는 작은 공책을 준비한다. 특히 새 단어에 그림이나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면 좋다. 가능하다면 매주 새 단어 3개를 실제 문장으로 만들기를 해본다.

○ 냉·난방 ○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잊은 고장의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넷째, 읽기 전-중-후 활동을 시켜본다. 읽기 전에는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추측하게 하고 읽는 중에는 재미있는 부분에 포스트잇 등을 붙이게 한다. 읽은 후에는 가장 좋았던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등장 인물에게 편지를 써보게 한다.

다섯째, 읽기 레벨 올리는 로드맵이 있다. 1-2학년에는 그림책에서 챕터북으로 전환한다. 3-4학년에는 하루 1챕터를 목표로 읽게 한다. 약 5-10페이지다. 5학년에는 시리즈 책에 도전하게 한다. Harry Potter, Percy Jackson 등의 장편이 좋다.

여섯째, 가족 독서 시간을 갖는다. 주 2-3회, 30분씩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가져 볼만 하다. 특히 각자 읽은 내용을 말해보게 한다. 이를 통해서 부모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습관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

2. 중학생 (6-8학년): 책을 통해 세상과 첫 대면을 한다.

첫째, 여러가지 장르에 도전해야 한다. 한 학기에 다양한 장르를 각각 한 권씩 읽어야 한다. 판타지, 현실 소설, 역사 소설, 전기, SF, 미스터리, 스릴러로 나눌 수 있다. 각 장르별로 대표작 리스트를 만들고 읽고 난 후 별점과 간단한 리뷰를 작성해 본다. 독서 편식을 피하고 숨겨진 관심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능동적 독서가 되어야 한다. 책을 읽으며 흔적을 남긴다. 포스트잇이나 형광펜을 활용해서 강조법을 익힌다.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메모하는 연습은 독서 습관으로 좋다.

셋째, 독서 모임 운영도 추천할 만하다.

장병희 객원기자

▶ 2면 '독서의 효과와 습관 만들기'로 계속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종례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쟁거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우물안 1등’ 서울대의 승부수 “외국인 교수 영입 땐 인센티브”

김태균 서울대 초대 국제처장

올 국제협력본부→국제처 첫 승격
MIT·미네소타대와 공동 연구 진행
“서울대, 세계적인 대학 만들겠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협력처장이 9일 관악캠퍼스에서 국제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서울대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본부를 국제처로 승격시키고 지난 9일 출범식을 가졌다. 국제처 승격은 ‘우물 안 1등’이란 서울대의 약점을 국제화 강화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김태균 초대 국제협력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처는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은 기구”라며 “대학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서울대의 국제화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협력본부장을 맡아 오다 지난 1 일부로 초대 국제협력처장으로 부임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대의 국제화 수준은 경쟁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체 교원 2300여 명 가운데 외국인 전임 교원의 비율은 110여명으로, 5%에 미치지 못했다. 또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서울대의 외국인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400명도 안 됐다. 이는 연세대(4700명)나 고려대(4400명)에 비해 크게 뒤쳐진

수치다. 국제화 지표를 20% 반영하는 영국 대학 평가 기관 QS의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는 17위를 차지해 연세대(11위)와 고려대(12위)에 밀렸다.

특히 김처장은 ‘국제화 인센티브’를 통해 서울대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김처장은 “외국인 학생의 지원은 많지만, 영어 강의가 많지 않거나 그들을 위한 지원 등이 부족해 입학률은 낮은 상태”라며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우수한 외국인 교원이나 학생들을 유치하면 그에 따라 추가 재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과대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협력본부와 달리 승격된 국제처는 연구 기능도 일부 부여해 진행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들 간의 공동 연구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2학기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메사추세츠공대(MIT)와 상호 파견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김처장은 “현재 MIT로부터 2명의 인턴을 받은 상태”라며 “최근 MIT 측에서 ‘학생들을 추가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그는 “최근 미네소타대학과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조만간 참여할 학생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부에 국제화 관련 새로운 회의체도 만들 계획이다. 김처장은 “서울대 국제화 전략 기획을 위해 단과대에서 부학원장급 교수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라며 “1년에 1번 꼴로 하던 회의도 1달에 1번으로 정례화해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처장은 “경계를 넘어 지식과 인재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진정한 글로벌 캠퍼스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3G Initiatives’라는 비전을 새로이 수립했다”며 “3G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확장과 서울대의 수월성을 토대로 세계로 진출(Global Engagement)하는 혁신적인 리더(Global Leadership)를 배출하는 비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처는 사회 공헌 부문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용 기자



김성중의 행복한 북카페

생각과 말들로 부자가 된 기분

도서관을 좋아하지만 빌려온 책들을 모두 읽을 생각은 없다. 나는 ‘책을 읽을 가능성’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고른다.

사금 채취꾼처럼 무수한 책 가운데 황금을 기대하면서 한 권씩 빼 드는 순간은 독서는 아니지만 독서와 같은 무언이다. 그러다 벼락같은 행운을 만

나기도 한다. 도

서관에서 내 힘과 우연으로 찾아낸 보석, 나탈리아 긴즈부르크도 그 중 하나다. 긴즈부르크는 더없이 인간적인데, 인간 적일수록 문학성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가족어 사전』

이라는 소설도 좋

지만 여리 명에게 선물한 책은 산문집 『작은 미덕들』이다. 그 중 ‘나의 일’이라는 산문을 특히 아낀다. 열일곱에 세 과목에서 낙제를 하고 부끄러워 울다가, 단편소설을 쓰고 나니 덜 부끄러워졌다는 일화 다음에 이런 문장이 이어진다.

‘여름이었다. 여름밤이었다. 창문은

정원을 향해 열려 있었고 밤나방들

이 전등 주위를 날아다녔다. 나는 모

눈종이에 내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까

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

복을 느꼈고 생각과 말들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이 없다면 어떻게 백지라는 임uckles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써먹으려고 열심히 메모해둔 표현들이 막상 소설에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난 이 일에는 저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한 대목도 인상적이다.

결국 글쓰기란 ‘우리 삶의 최고와 최악을 먹어치우며’ 자란다고 그녀는 들려준다.

이 책을 읽다면 생생한 기억은 일종의 상상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어린 자녀들과 지냈던 시골 동네, 평생 소년의 우아함을 지닌 채 자살한 시인 체사레 파베세에 대한 일화, 신발에 대한 이야기 등에서 기억은 지나간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찬란하게 떠오른 또 하나의 상상·사유·현실이라는 느낌을 준다.

인생을 통과한 목소리에 배인 우수 어린 행복, 도서관에는 이런 황금이 얼마나 더 묻혀있을까?

소설가



▶ 1면 ‘독서의 효과와 습관 만들기’에서 계속

부터 추천을 받는다.

여섯째, 독서 습관을 만들자. 우선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읽어 일과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혹은 점심시간 10분 동안 읽기, 자기 전 30분간 읽기도 좋다.

일곱번째, 독서와 글쓰기를 연결한다. 책 리뷰 블로그를 시작해 본다.

3. 고교생 (9-12학년): 최고의 독서가를 지향한다.

첫째, 균형잡힌 독서 포트폴리오를 갖는다. 읽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소설 40%를 배분해서 창의력과 공감 능력, 대학 에세이 준비한다.

둘째, 전략적 독서 계획을 짜본다. 학기별로 독서 목표를 설정한다. 학

기당 10~12권이 좋다. 여름방학에는 15~20권에 도전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책을 포함한다. 당연히 AP/IB 과목과 연계된 책 읽기, 대학 입시 에세이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속독 훈련 프로그램을 익혀본다. 1단계로 손가락이나 편으로 글을 따라가며 읽기, 2단계는 머릿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읽기 연습, 3단계는 한번에 3~5개 단어씩 묶어서 읽기, 4단계는 주변 시야를 활용해 줄 단위로 읽기를 익힌다. 목표는 분당 200~250단어로 시작해 300~400단어까지 올리고 매주 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넷째, 비판적 독서와 분석에 초점을 둔다. 모든 책을 읽고 나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독서 노트 시스템을 이용한

다. 디지털 노트인 Notion 또는 손으로 노트를 작성해 본다. 기록 항목으로는 기본 정보인 제목, 저자, 장르, 완독 날짜, 3~5문장 요약, 핵심 인용구 3개와 페이지 번호, 별점 (5점 만점)과 상세 이유,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준 영향, 활용 가능성도 따져본다. 에세이나 프로젝트에 쓸 만한지를 검토해 본다.

여섯째, AP/대학 수준 독서를 확인한다. AP English 권장 도서 목록 확인하고 고전 문학 도전한다. Shakespeare, Jane Austen, Dickens 등의 작품이다. 또한 현대 문학 명작인 Toni Morrison, Haruki Murakami 등, 철학 입문서인 플라톤, 니체 등, 과학/역사 베스트셀러인 Sapiens, Thinking Fast and Slow 등을 읽는 것이 유용하다.

일곱번째, 읽기와 시험 준비를 연계

한다. SAT 읽기에 대비해서 매주 복잡한 논픽션 1편을 읽는다. ACT 준비에는 다양한 주제의 짧은 글을 빼르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APLiterature는 문학 작품의 상징과 주제 분석을 통해 연습한다.

여덟번째, 고급 독서 기술도 고려해 본다. SQ3R 방법은 Survey(훑어보기), Question(질문), Read(읽기), Recite(암송), Review(복습)다. 코넬 노트 방식으로 책 내용을 정리한다. 마인드맵으로 책의 구조를 시각화해 본다. 책의 핵심 논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도 연습해 본다.

아홉번째, 독서와 진로를 연결한다. 관심 분야 전문가가 쓴 책 읽거나 희망 직업 종사자의 자서전이나 인터뷰도 읽어볼만 하다. 전공 관련 입문서를 미리 읽어 보는 것도 매우 좋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ペン(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간호사(RN)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Eng/Kor)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할 일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주제는 인공지능(AI)이었다. 미국의 티임지는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인공지능 분야에 기여한 8명의 인물들을 선정하였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사업가도 기술 자도 다들 미친 듯이 인공지능에 몰입하였고, 그 중심에 자리잡은 앤비디아라는 회사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이 결국 꺼지고 말 거품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보다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서운 속도로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과 존재 자체에 미칠 영향이다.

근래에 개발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은 수준 높은 자료 수집과 분석을 엄청난 속도로 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학 연구에도 사용된다. 그뿐 아니라 뛰어난 언어 능력을 발휘하며,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는 등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경지에 이르렀다. 기계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한다면, 또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인지,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이 특별한 이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다. 공업·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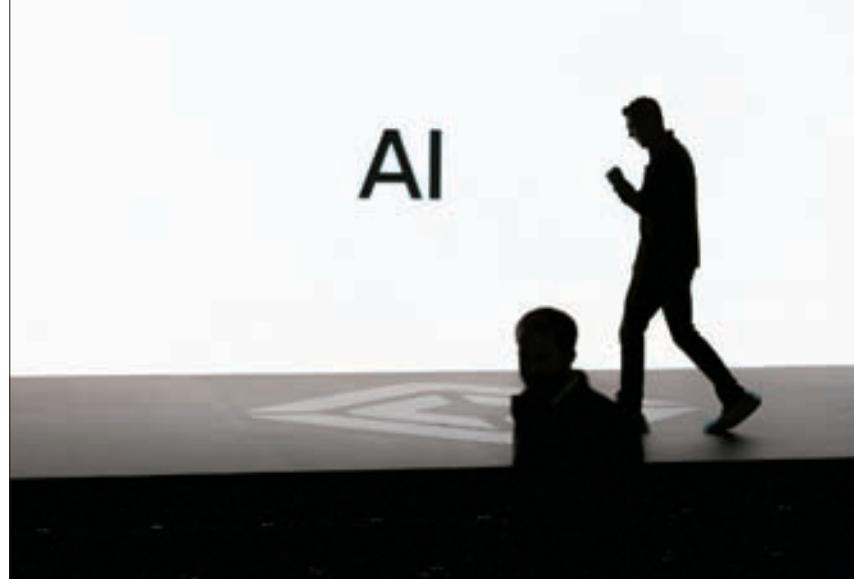
인간 영역에 깊게 침투한 AI
‘사람의 쓸모’ 깊은 의문 들어
인간의 자기성찰 더욱 필요해
최종 판단과 경험은 인간 몫

건설업에서 힘 세고 정밀한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많은 부분 불필요하게 했으며, 인지적인 영역에서도 계산기나 구식 컴퓨터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을 가진 작업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특별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의외로 잘 해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벌써 오래전, 알파고가 바둑의 달인 이세돌을 물리쳤을 때 그 생생한 충격을 경험했다.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을 볼 때 가장 경이로운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글을 쓴다는 것은 대개들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챗GPT 등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웬만한 사람보다 글을 더 잘 쓴다. 말끔한 문장을 지어내고 글의 구성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낸다.

한 가지 언어로 글 쓰는 것을 넘어서, 번역과 통역도 거칠없이 해낸다. 이것은 인간 중에도 다년간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최고의 전문가들만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사람들

은 이제 예술도 거기에 맡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림과 시를 내가 끄적거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지은 노래가 인기 차트에 오르는 사건 까지 이미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앨토에서 열린 '자율주행 및 AI 데이' 행사장 무대. [연합뉴스]

그러면 이제 인간 특유의 직관이나 창의성은 낡아빠진 개념에 불과한가? 그렇게 선불리 생각하기는 이르다. 인공지능이 박학다식한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인간들이 말해 놓은 것을 다 섭렵해 모방하기 때



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을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내놓은 결과의 가치에 대한 판단력은 미미하고, 결국 그 판단은 인간의 임무이다.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조수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조수가 가져온 결과는 일시킨 사람이 보고 판단해 채택하든지 폐기하든지 다시 해오라고 시키든지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의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시킬 수 없다. 인공지능이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 등을 하는 것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여서 하는 국회나 내각은 생각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는 직접 경험하는 것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히 인간만의 영역이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기술은 아무리 조심스레 개발한다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고,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겼던 곳들을 계속 침범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 래도 인간만이 가진 능력과 인간이 직접 해야만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포기한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

또한가지 상기할 점은 인생의 의미는 직접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는 계산기를 쓰더라도 어린이들에게는 산수를 가르쳐서 직접 계산하는 법을 우선 깨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숫자를 곱하고 나누고 해 본 경험 없이 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방정식을 풀어 보고 미적분을 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다. 인공지능이 번역해 주면 내가 애써 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어를 직접 힘겹게 배우면서 이국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또 그러한 다른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게 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해 줄 수 없다.

무슨 일이 되었건 인공지능이 더 잘 한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빼앗기므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사람이 해주건 인공지능이 해주건 남이 다 해주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

AI가 대체 못할 기술직에 몰린다

칼리지 전문기술 수강생 급증

배관·전기·건축·항공정비 인기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컴퓨터 코딩과 회계, 문서 작성 등 기존 사무·전문직 영역에 AI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어려운 기술직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ABC7과 NBC4, LA타임스 등은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칼리지 준학사 전공 수강생이 최근 30% 이상 증가했다며, AI 시대를 대비해 대체 불 가능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자동차 정비와 항공정비, 건설 기술 등을 배우는 학생 가운데는 AI로 인한 실직 가능성에 우려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MBA를 취득한 베이커 강 씨도 수년간 봄담았던 스타트업 회사를 그만두고 샌디에이고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건설기술을 배우고 있다.

강씨는 ABC10과의 인터뷰에서 “5~10년 뒤에는 AI 등 과학기술로 인



해 모든 것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본다”며 “기술이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경력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I의 대부’로 불리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AI가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힌턴 교수는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물론 인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대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배관공처럼 육체 노동이 필요한 직업은 대체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AI에 따른 기존 일자리 대체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용접과 배관, 요리, 전기 설비, 농사 등 ‘물리 법칙’에 기반한 일자리를 꼽았다.

실제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관련 전자 전공과 기술 교육 과정은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트레이드 테크 칼리지(TTC)의 자동차 정비 과

목 2024년 가을학기 등록생은 1134명으로, 2022년보다 34% 증가했다. 수강생들은 자동차 엔진 정비와 연료 분사 시스템, 에어백 수리, 전기차 정비 기술 등을 익혀 지역 주요 자동차 제조사 경비사로 취업하고 있다.

ABC10 뉴스는 AI 시대에 주목받는 전문 기술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보수 기술자(시간당 66달러)와 건축물 단열 전문가(시간당 57달러), 건설·건축 감독관(시간당 48달러) 등을 추천했다. NBC4 뉴스도 항공정비학과 등 기술자·정비사 과정의 인기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인력관리협회(ASA)가 지난해 6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3%가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직업기술 전문학교 진학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셀러

- 집 고쳐서 팔까? 아님 AS-IS로 팔까?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세요.
- 집 팔기전에 고치고 싶은 분들, 큰 돈들이지 않고 집수리 깔끔하게 하여 확실히 팔아 드립니다. 고친 비용은 이자없이 크로징에서 내셔도됩니다.

바이어

투자용 주택 사시거나,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영동한 집 사서 후회 하지 마시고 꼭 비키리 부동산과 상담해 주세요. 자산 증식이 될수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대 주택

확실한 세입자 찾아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매릴랜드, 디씨 임대 면허 관리 해 드립니다.

RENT	
콘도, 알렉산드리아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싱글홈, 포토맥	\$4,000
방3, 화2	
타운홈, 센터빌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타운홈, 페어팩스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타운홈, 센터빌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매릴랜드	싱글홈
	\$700,000

관행, 1991년
방4, 화3.5, 치고2,
지하 울수리, 일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앤플러스 부동산 / 탈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메일: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대입 들여다보기

빈센트 김 / 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지난달 중순 전국에서 최소 수만 명의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일찌감치 2026년 가을학기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다. 조기전형(ED, EA, REA 등)이라는 제도 덕분이다.

정시 지원조차 하지 않은 친구들을 뒤로하고 먼저 합격증을 손에 쥔 이들은 분명 행운아다. 하지만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행운일까.

그중에서도 특히 ED는 학생이 11월 초 또는 중순까지 단 한 곳에만 지원하고,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하겠다고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전형이다.

지지자들은 이를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고 말한다. 학생은 입시스트레스를 조기에 끌낼 수 있고, 대학은 신입생 구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 준다. 명문 리버럴아츠 칼리지(LAC) 인 미들베리 칼리지는 신입생의 68%를 ED로 선발했다. ED 합격률은 30%였지만 전체 합격률은 11%에 불과했다.

다트머스 칼리지 역시 비슷하다. 신입생의 58%가 ED 합격자이며, ED 합

격률 19%와 전체 합격률 5%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표면적으로 보면 ED 지원자는 정시 지원자보다 2~3배 높은 합격 가능성을 가진다.

문제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ED는 학생들에게 여러 대학의 재정보조 금액을 비교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므로, 다른 학교의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을 살펴볼 여지가 없다. 계약서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이 옵션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3년 커먼앱(Common App) 분석 결과는 이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보다 ED에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인종 별로는 아시아계가 23%로 가장 높았고, 백인 12%, 라틴어 9%, 흑인 8%가 그 뒤를 이었다.

ED는 사실상 학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대니얼 커렐 전 연방교육부 (DOE) 부차관보는 이것은 결함이 아

니라 의도된 설계라고 지적한다.

연간 학비가 생활비 포함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전액 부담' 학생들을 조기에 확보하려 한다. ED는 대학 재정에 확실성을 제공하고, 합격자 중 실제 등록 비율인 '일드율'을 높여 대학 순위에도 도움이 된다.

상황은 더 복잡하다. 2000년대 초반 10~25%였던 명문대 합격률은 이제 대부분 8%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통지원 플랫폼의 등장으로 학생들이 손쉽게

여러 학교에 지원하면서 지원자 수는 폭증했다.

표준화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성적 인플레이션과 집중적인 입시 코칭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상 점점 더 비슷해 보인다.

커렐은 냉정하게 말한다. "체커를 두는 줄 알았지만 학교들은 체스를 두고 있다." 합격하려면 자신만의 서사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며, ED는 그 전략의 핵심이 됐다.

지난 8월 이 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학생과 졸업생들이 컬럼비아, 코넬, 듀크, 유豌 등 32개 명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대학들이 ED 합격자 명단을 공유하고, 서로 학생을 유치하지 않기로 담합했으며, ED 약속 철회를 시도하는 지

원자를 불이익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변호인은 "ED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말한다. 대학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며 부인하지만 ED가 구조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논란은 극소수 명문대에만 해당한다. 커렐이 지적하듯, 최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오히려 입학이 쉬워지고 있다. ED를 활용할 만한 시장 지배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ED는 기회가 아니라 특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줄어든 정원을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미래인가. 대학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갑을 먼저 보는 것인가.

ED 제도는 이제 그 본질을 묻는 질문 앞에서 있다.

에듀 포스팅

교장 세라 박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습은 단순 암기나 이해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복잡한 개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히 적용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생각을 구조화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는 능력이다. 오늘은 이 두 축을 대표하는 학습법, '마인드맵(Mind Mapping)'과 '연습 중심 학습(Practice-based Learning)'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인드맵 구조화하는 마인드맵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 정의와 예외, 개념과 적용이 서로 종종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학습은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 교과서에는 원인, 전개, 결과가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학생은 모든 문장을 같은 무게로 읽는다. 그래서 시험

학습 내용 정리되지 않으면
마인드맵, 반복 연습법 활용

이 되면 이렇게 말한다. "다 읽었는데,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필요한 공부법이 마인드맵이다. 프랑스 혁명을 가운데 두고 '재정 위기', '계몽사상', '신분제'는 원인으로 둑고, '삼부회', '바스티유 감옥'은 전개로, '왕정 붕괴'는 결과로 시각화한다.

마인드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한 단원의 핵심 개념을 중심에 두고, 그 개념에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과 설명을 가지처럼 뻗어 나가며 정리하는 방식이다. 글로만 가득 찬 노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관계가, 도식화되는 순간 명확해진다. 특

히 시각적 정보를 통해 사고하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매우 크다.

중요한 점은 마인드맵은 단순한 '정리 노트'가 아니라 사고 도구라는 사실이다.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마인드맵을 그리는 과정에서 학생은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이 개념이 왜 여기로 연결되지만?", "이건 원인인가 결과인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깊은 이해를 만든다. 시험 직전에도 한장의 마인드맵만 떠올리면 단원의 전체 구조가 빠르게 재구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습으로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와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학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언제나 시간 압박 속에서의 적용 능력을 요구한다. 교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개념도, 실제 문제 앞에

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이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연습이다.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린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5번, 10번 풀다 보면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아, 이 조건이 나오면 이걸 먼저 봐야 하는구나." 연습은 실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연습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과정은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의 유형을 인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며, 자신의 사고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가 잦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연습이 쌓이면 학생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진다.

문제를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풀이 전략이 자동화되며, 시험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든다.

현장에서 보면,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이해했다"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문제로 확인한다는 점이다. 연습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수확은 점수가 아니라 자신감이다. "이 정도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다뤄봤다"는 경험에서 시험장에서 아이를 지원한다.

마인드맵과 연습 중심 학습은 서로 분리된 기술이 아니다. 마인드맵은 지식을 구조화하고, 연습은 그 구조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학습은 완성된다. 공부는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보다, 더 나은 도구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성적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훈련의 문제이다. 올바른 학습 전략을 익힌 아이는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이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과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진짜 실력이 된다.

① 위성판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웹마케팅 전문
(신문 독자 혜택)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타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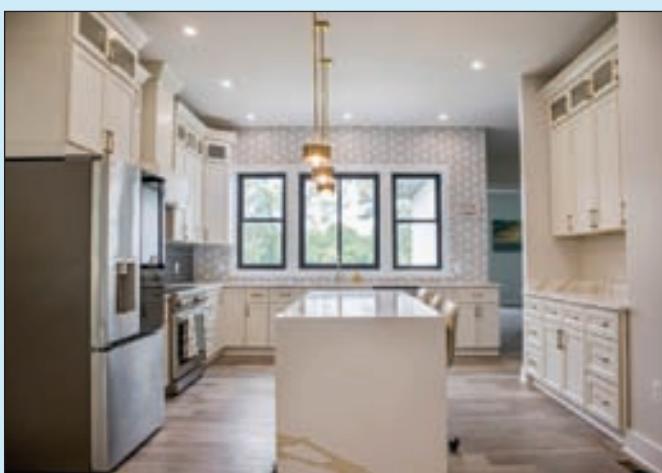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인디애나대의 쿼터백 페르난도 멘도자가 9일 오리건대와의 경기에서 라싱 공격을 하고 있다.

[Brett Davis-Imagn Images·로이터]

인디애나-마이애미 결승… 뒤집힌 대학풋볼 판도

미국에서 대학 시절을 보낸 이들이라면 가을과 겨울 캠퍼스를 달구던 풋볼의 열기를 기억할 것이다.

특히 남동부 컨퍼런스(SEC)의 위세는 공포에 가까웠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즌 중 무려 13번을 SEC 팀들이 제패했다.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 SEC 소속 팀들은 유망주들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후보 선수들의 실력마저 출중해 부상 선수가 발생해도 전력에 차질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로즈볼을 비롯한 주요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SEC의 이름은 실종됐다. 농구 명문이지만 풋볼은 컨퍼런스 하위권이었던 빅텐(Big Ten)의 인디애나 대학교와,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ACC(애틀랜틱 코스트 컨퍼런스)의 강자 마이애미 대학교(플로리다주)가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 SEC 팀이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 2005년 시즌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SEC는 이번 시즌 볼

스폰서십 협약·전학 족쇄 폐지
‘동문 파워’ 북동부 대학 급부상
‘전통 강자’ 남동부팀들은 고전

게임에서 4승 9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다.

인디애나의 돌풍은 커트 시그네티 감독의 부임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의 전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양은 NIL(Name, Image, Likeness)과 포털(Transfer Portal)이라는 새로운 제도였다.

미국 대학 스포츠는 2021년 이전까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선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 1달러도 벼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엄청난 중계권료를 챙기지만, 정작 주인공인 선수는 장학금과 식비 외에 손에 쥐는 것이 없었다.

NIL은 선수들이 자신의 성명과 이미지, 선호도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올

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팀의 동문 재단(콜렉티브) 등이 선수들과 합법적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로 선수처럼 계약금과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이전 SEC의 독주는 순수한 실력만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었다. 남부 대학들은 규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공격적인 불법 스카우트를 막아하지 않았다.

에드 오르제론 전 LSU 감독은 디 애슬레틱에 “이제는 돈을 들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는 함의다.

한 빅텐 소속 감독은 “모든 팀이 선수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게 되자 경쟁이 즉시 평준화됐다. 그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북부와 동부 명문대들이 유리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동문 네트워크와 깨끗한 이

미지를 보유한 북부·동부 명문대들은 음성적인 뒷돈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투명한 계약을 선호하는 스포츠 인재들을 불러들이는 원동력이 됐다. 탄탄한 재정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북동부 명문가들로 인재들의 발길이 돌아서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전학 자유 제도인 포털은 인재 독점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거에는 전학 시 1년을 쉬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유망주들이 앨라배마 같은 풋볼 명문대의 벤치를 지키는 쪽을 택하곤 했다.

이제는 다르다. 더 많은 출전 기회와 유리한 NIL 조건을 찾아 언제든 팀을 옮길 수 있게 되자, 인디애나 마이애미 같은 팀들은 포털을 통해 즉시 전력 감을 수혈하며 단기간에 우승권 전력을 구축했다. 대학 스포츠는 이제 선수 개개인이 주체로 올라서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성호준 기자

월드컵 한국 베이스캠프

1·2차전 과달라하라 유력

홍명보호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 위치는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 후보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를 멕시코의 현지 환경과 경기장 이동 거리, 운동생리학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중미에 산재한 후보지 70여곳 중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시설 두 곳을 1,2순위로 FIFA에 제출했다.

나머지 3~5순위 후보 역시 멕시코 지역에 있다. 후보지 상위 1, 2순위를 과달라하라 지역으로 제출한 만큼,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는 이곳에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FIFA는 ▶조추첨 포트가 높은 팀 ▶해당 도시에서 경기 수가 많은 팀 ▶베이스캠프와 경기 장소 간 항공 이동이 적은 팀 ▶FIFA 랭킹이 높은 팀 순으로 고려해 참가국 48개 대표팀의 베이스캠프를 정해준다.

브레그먼, 컵스로 간다

5년 1억7500만불 계약

메이저리그(MLB) 정상급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31)이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는다. AP통신 등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자유계약선수(FA) 브레그먼이 컵스와 계약기간 5년, 총액 1억7500만 달러에 계약 합의했다고 전했다.

컵스 구단은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브레그먼은 2018년과 2019년, 2025년 올스타에 선정된 스타 플레이어이다.

MLB닷컴은 “계약이 확정되면 브레그먼은 컵스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총액에 도장 찍은 선수가 된다”며 “연평균수입(3500만달러)은 컵스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다저스, 월드시리즈 3연승 가능성

MLB닷컴의 파워 랭킹 1위
토론토 2위·시애틀 3위 올라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MLB) 인터넷 홈페이지의 2026시즌 파워 랭킹 1위에 올랐다.

MLB닷컴은 9일 2026시즌 30개 구단 전력을 전망한 파워 랭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월드시

리즈를 제패한 다저스가 1위에 올라 2026시즌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됐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이번 시즌 전력 보강이 없더라도, 3년 연속 우승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월드시리즈 3년 연속 우승 최근 사례는 1998년부터 2000년의 뉴욕 양키스다.

파워 랭킹 2위는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3승 4패로 무릎 끊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다. 토론토는 이번 비

시즌에 일본프로야구 흠판왕 출신 오

카모토 가즈마를 영입했다.

시애틀 매리너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3, 4위에 올랐다.

나란히 뉴욕을 연고로 하는 인기 팀 양키스와 메츠는 7, 8위로 평가됐다.

김성성이 속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11위, 송성문이 입단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12위다.

이정후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9위 전력을으로 예상됐다.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짐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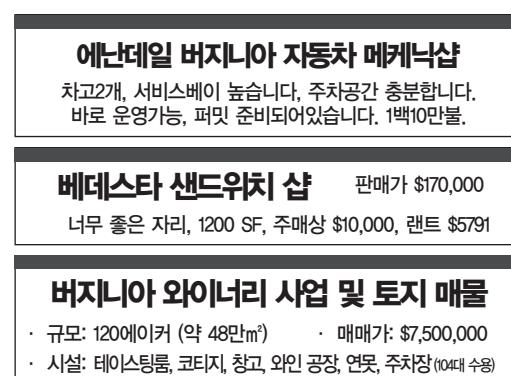
\$2,795,000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3,299,000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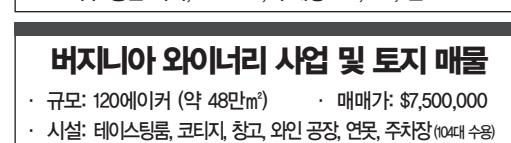
에灌溉리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너샵

차고2개, 서비스베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분합니다.

바로 운행 가능, 퍼밋 준비되어있습니다. 1백1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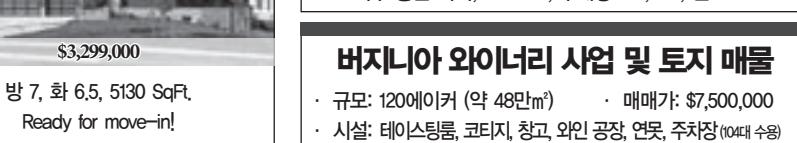
매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랜트 \$5791



\$3,195,000

방 5, 화 4.5, 3400 SqFt.
지금 전화주세요!



\$1,895,000

방 5, 화 4.5, 3160 SqFt. 2023년도 집
노스베데스다 근처, 꼭 보셔야 할 집!

저희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민·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드링)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짐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海淀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바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1월

구

인

광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점문기·점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장·일·보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9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督办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온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쿨리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무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입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리스탁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인포트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식당에서 홀 서버 일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텔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네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이 테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령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성홍.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헤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싱글지하전체렌트, 간이 주방, 큰방, 큰
거실, 큰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렌트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경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터, Bakery 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익스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customer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patronizing

habits.

40 hours/week. Bachelor degree in

Marketing, Management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Blue Bell Inc, dba Pure

in Heart Nail Boutique at 700 O St NW,

Washington, DC 20001.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
니다. 이중 언어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 k546272@gmail.com

리셉션 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 가능자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광고 한달 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중앙일보

이어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i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일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6am-2pm) \$18/hr+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 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우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어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너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버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 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카운터 보설 분
풀/파트타임 얼터레이션 하실 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 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자동차 / 정비 / 바다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력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여린이를 사랑하시는 분
571-235-8997/ 703-505-5760

가사 도우실 분을 찾습니다.
음식 깔끔하게 하시는 분, 세탁, 집안 정리
12:30-7:30 주 5일 주급 \$750
경험자 우대, 가족처럼 오래 일하실 분
맥클린 VA
703-887-1037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 층 데크, 카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팩 플랫폼 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카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
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كت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쿨룸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활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카고 2, 앤드 유닛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카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사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 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로튼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전체

렌트, 방2/거실/욕실/주방/세탁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가능

703-774-4939

애난데일 시루앞 빙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이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 분

703-732-1246

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월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사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로튼(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트

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월룸 스타일 밝고 조용한 콘도 방이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 517-239-6054
1. 센터빌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챈틸리금매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알디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치고 2, 전체 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시티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꾸며
진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 2, 우승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치고 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용/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워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 모집
▶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매개 담
차고 2개, 서비스비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10만불
▶ 703-928-5990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트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sf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파이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홀,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프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 - 리모델링 건축 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프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애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봉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데크, 메이터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내년도 메디케
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 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들습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옴니하우스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및 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클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 클러,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컬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
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브레이크 크리닝, 최상의 트리파워 스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플러시온,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워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카페,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을,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 밖 물새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싸이/포장/이사/서비스/자재
▶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오래되고 잊은 고장이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화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통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ot's City, MD 21043

엘리ott시티

롯데플라자 내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ot's City, MD 21043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중앙일보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C13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Realty Incorporation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쌠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씽크 / 디스포져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van: They're organizing a basketball team at work. I'm thinking about playing.

아이븐: 회사에서 농구팀을 만든다. 나도 농구를 할까 생각 중이야.

Liz: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리즈: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

Ivan: Give me a break. I was a good high school player.

아이븐: 한 번 봐주라. 나도 고등학교 때 괜찮은 농구선수였어.

농구선수였어.

Liz: That was twenty years ago. I don't want you to have a heart attack running up and down the court.

리즈: 그건 20년 전 이야기지. 코트 양쪽을 뛰어야

니다 심장마비 일으키면 어떡해.

Ivan: Do you want me to give up basketball?

아이븐: 농구하는 거 포기하라는 거야?

Liz: Well you should at least get a physical.

리즈: 그게 최소한 건강 검진은 받아야지.

Ivan: Okay I can do that. 아이븐: 알았어. 그건 받지.

Liz: And you need to cut back on fatty foods so you can lose some weight.

리즈: 그리고 기름진 음식 덜 먹어서 몸무게를 좀 줄이고.

Ivan: That's a good idea.

아이븐: 그거 좋은 생각이야.

Liz: But I'm still worried about you having a heart attack. 리즈: 그래도 심장 마비 일으킬까 걱정돼.

.....

기억할만한 표현

▶ running up and down the court:

(농구 등의) 코트 양 쪽 끝을 계속 뛰어다니다.

"He runs up and down the court faster than any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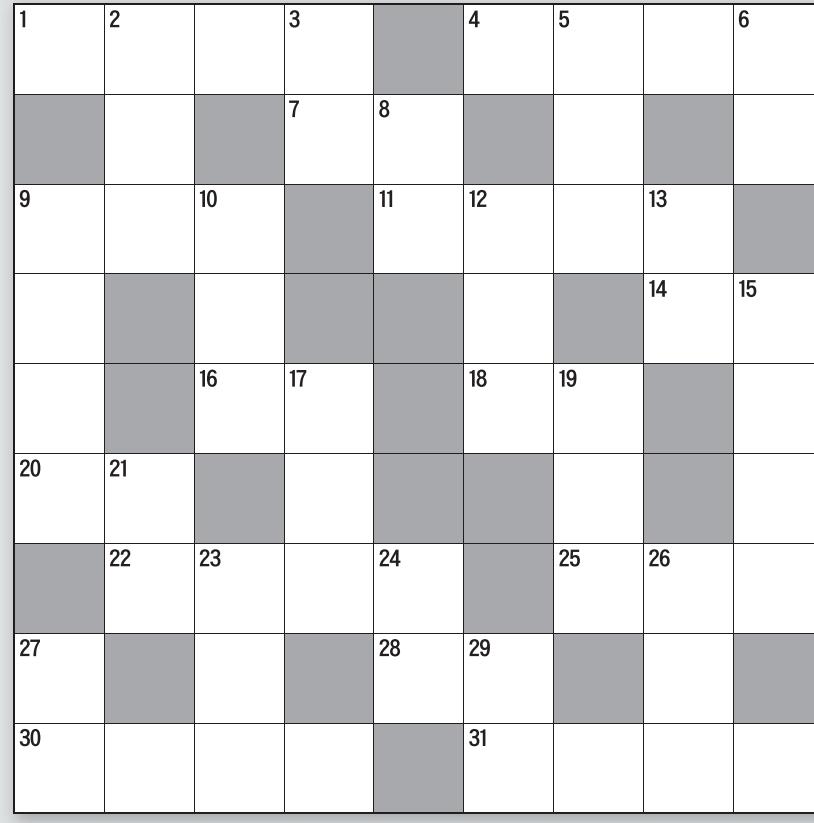
(그는 누구보다 빨리 코트 양 쪽 뛰어다녀.)

▶ at least: 적어도.

"At least you should listen to his expectations."

(적어도 그가 뭘 기대하는지는 들어야지.)

날마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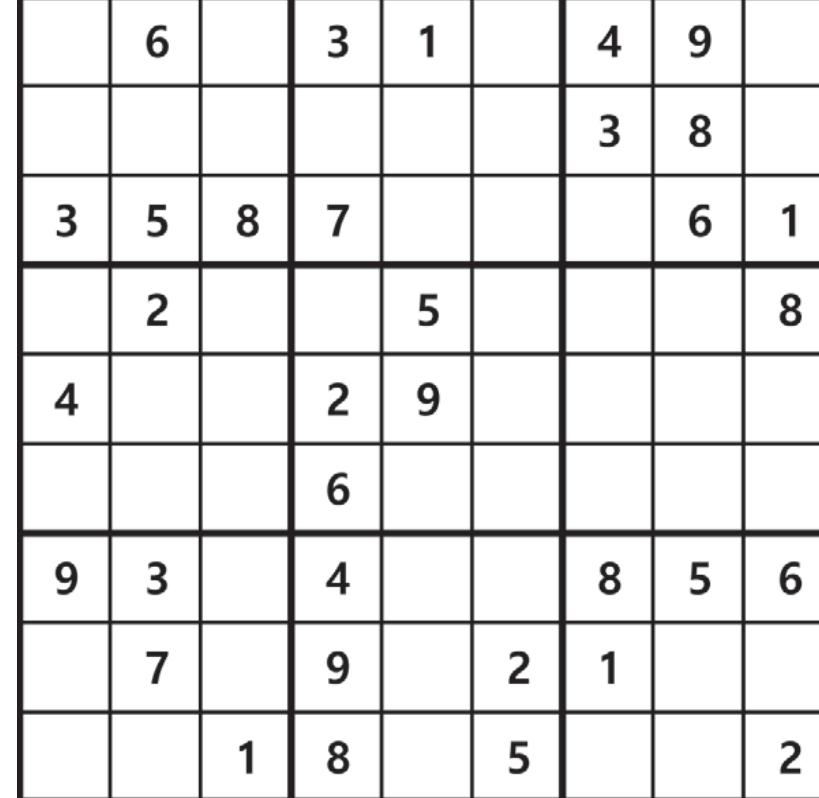
가로열쇠

(1)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거드름을 피우며 느리게 걷는 걸음 (4)하루의 아침과 하루의 저녁, 짧은 시일.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 근본이 ~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 (7)저고리와 함께 입는 여자의 하의 (9)푸성귀를 다듬을 때에 골라 놓은 걸대. 깁장이나 젓갈 따위의 맨 위에 덮여 있는 품질이 낮은 부분 (11)소의 양지머리뼈의 한복판에 붙은 기름진 고기. 빛이 희고 단단하다 (14)부처 앞에 바치는 돈 (16)종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8)연료가 탈 때 나오는, 그을음이 섞인 연기 (20)찹쌀가루를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밤돌만큼씩 둥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여러가지 고물을 묻혀 만든 떡 (22)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 스물셋에 ~가 되신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정성껏 키우셨다 (25)어떤 일이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지 않기도 하는 사람의 운수 (28)식욕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 위에 뿌리거나 얹는 식품 (30)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로□□ (31)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평□□

세로열쇠

(2)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죠. 사이클 (3)음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발성하지 못하는 사람 (5)호리병박으로 만든 바가지 (6)고기 따위를 굽는 기구. 철사나 구리선 따위로 그늘처럼 엮어 만들죠 (8)말이 끄는 수레 (9)쇠귀에 경 익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려 주어도 알이들지 못함. □이□□ (10)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12)돌멩이를 멀리 날려서 던지는 것 (13)잘 때 덮고 자죠 (15)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화□□ (17)생강과 계핏가루를 넣어 달인 물에 설탕물이나 꿀을 타서 식힌 다음 곶감을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19)뒤가 두 갈래로 길게 내려와 마치 제비의 꼬리처럼 보이는 남자용 서양 예복 (21)목조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 (23)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24)사람의 죽음을 알림 (26)등불 따위가 휘황하게 켜 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 (27)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줌 (29)상태에 따라 생태, 동태, 북어, 코다리, 황태, 멱태, 노가리로 불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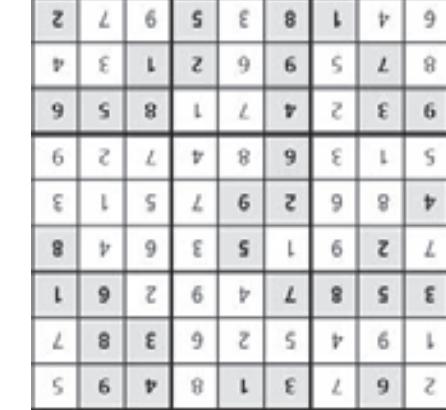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난 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Old Lee Hwy.
T.J. Maxx
Main St. Center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Woodson H.S.
Burke Station Rd.